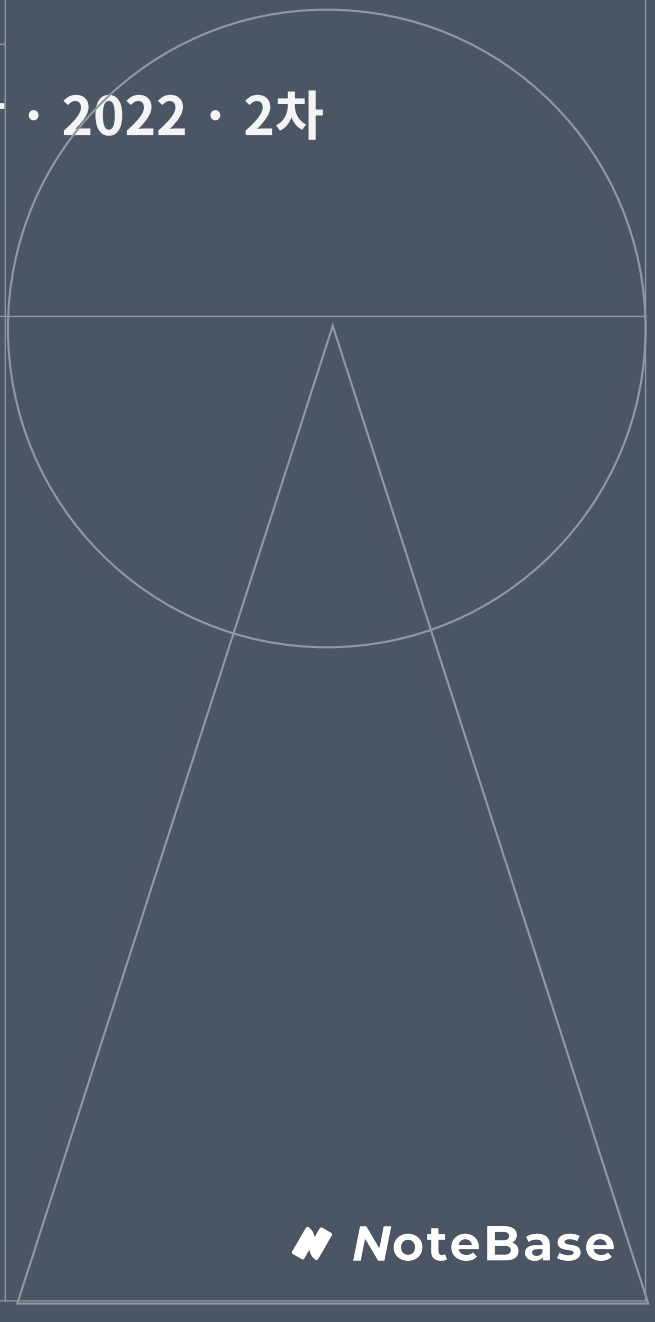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2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2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2 · 2차

문 1.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아닌 것은? (단,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②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③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④ 습지보호지역 등(연안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법정 범위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핵심 구분

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습지 복원은 습지보호지역등 중 내륙습지로 한정한다.
연안습지는 이 조문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1번 O: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은 법에 열거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해당한다.
2번 O: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도 법에 명시된 자연환경복원사업이다.
3번 O: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과 야생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등의 설치사업 역시 법이 정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해당한다.
4번 X: 틀린 표현은 '연안습지로 한정한다'이다. 법은 습지보호지역등 중 '내륙습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올바른 표현은 '습지보호지역 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4번은 습지의 종류를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조문을 대강 기억하면 '습지 복원도 포함된다'는 수준에서 멈추기 쉬워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선지는 먼저 열거 항목 자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한정어와 예외 문구를 본다. 특히 괄호 안 한정 표현이 바뀌면 정답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암기 포인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습지 복원은 연안이 아니라 내륙습지이다.

NoteBase

문 2.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은?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자연학습장

① 공공시설
② 휴양 및 편의시설
③ 문화시설
④ 상업시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시설의 유형 분류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열거된 시설이 공공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 상업시설이 아니라 문화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공원시설은 자연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시행령이 기능별로 나누어 열거한 것이다.

핵심 구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을 문화시설로 열거한다. 공공시설은 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 등 관리 기반 시설이고, 휴양 및 편의시설은 야영장·전망대·휴게소 등 휴식과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이며, 상업시설은 기념품 판매점·약국·식품접객소 등 영업 기능의 시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공시설은 공원관리사무소, 탐방안내소, 매표소, 우체국 등 공원 관리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군이다. 제시된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공공시설
올바른 표현: 문화시설

② X
휴양 및 편의시설은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전망대, 휴게소, 공중화장실처럼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다. 제시된 시설군은 관람·전시·학습 기능이 중심이므로 휴양 및 편의시설이 아니다.
틀린 표현: 휴양 및 편의시설
올바른 표현: 문화시설

③ O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자연학습장 등을 문화시설로 직접 열거하므로 옳다.

④ X
상업시설은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 미용업소, 목욕장 등 영업이나 판매 기능을 가진 시설군이다. 제시된 시설군은 판매시설이 아니라 문화 향유와 학습을 위한 시설이다.
틀린 표현: 상업시설
올바른 표현: 문화시설

오답 포인트

시설 명칭만 보고 막연히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로 묶으면 틀리기 쉽다. 이 문제는 시행령이 예시를 직접 열거한 문화시설 묶음을 기억했는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시설 분류 문제는 보기의 대표 예시를 먼저 확인한 뒤 관리용 시설인지, 휴식·편의용 시설인지, 문화·관람용 시설인지, 영업용 시설인지 기능 기준으로 나누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은 문화시설 묶음이다.

NoteBase

문 3. 다음에서 설명하는 비탈면 녹화공법은?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종자, 비료, 흙을 구멍에 채워 넣은 공법으로 비료의 유실을 막고 비료효과가 오래간다. 이 공법은 단단한 점토질이나 경질 석회토와 같은 균일한 토질의 비탈면에 적합하고 식생매체를 수평배열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공법이다.

① 식생매트 공법
② 식생판상 공법
③ 식생자루 공법
④ 식생구멍 공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비탈면 녹화공법 중 식생구멍공법의 시공 방식과 적용 비탈면 특성을 다른 공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식생매트공법은 종자와 비료가 부착된 매트로 비탈면 표면을 넓게 덮는 면상 피복 공법이다.
식생판상공법은 판상 재료를 비탈면의 수평구에 깔아 붙이는 공법이다.
식생자루공법은 종자·비료·흙을 넣은 자루를 비탈면의 수평구에 배치하는 공법이다.
식생구멍공법은 비탈면에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종자·비료·흙을 채워 점상으로 식생을 도입하는 공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구멍을 파서 종자·비료·흙을 채운다는 부분이다. 식생매트공법은 매트를 비탈면 전면에 덮어 침식을 막는 공법이므로 올바르게는 매트로 표면을 피복하는 방식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일정한 간격의 구멍과 지그재그 배치라는 부분이다. 식생판상공법은 판상 재료를 수평구에 깔아 붙이는 방식이므로 올바르게는 수평 방향으로 배열하는 공법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구멍을 파고 그 안을 채운다는 부분이다. 식생자루공법은 종비토를 넣은 자루를 수평구 속에 설치하는 방식이므로 올바르게는 자루를 수평구에 배치하는 공법이다.
④ O: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종자·비료·흙을 채워 넣으며, 비료 유실이 적고 효과가 오래가고, 균일한 경질 토질의 비탈면에 적합하며, 식생매체를 수평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배치한다는 설명이 식생구멍공법과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부분 녹화공법은 모두 종자와 비료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름만 보고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재료 이름이 아니라 시공 형식에 있으며, 면으로 덮는지, 수평구에 까는지, 자루를 넣는지, 구멍을 파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 일정 간격의 구멍, 비료 유실이 적음, 경질의 균일한 비탈면, 지그재그 배치가 함께 나오면 식생구멍공법으로 판단한다. 매트는 전면 피복, 판상과 자루는 수평구 배열이라는 점으로 먼저 배제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매트는 덮고, 판상은 깔고, 자루는 넣고, 구멍공은 판다.

NoteBase

문 4. 다음에서 설명하는 토량의 체적을 구하는 방법은?

◯ 경지정리, 택지조성공사 등 넓은 지역의 정지작업에 이용된다.
◯ 전(全) 구역을 직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① 단면법
② 점고법
③ 등고선법
④ 유토곡선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량 체적 산정 방법 중 점고법의 적용 대상과 구획 방식, 그리고 단면법·등고선법·유토곡선과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점고법은 넓은 부지를 격자나 삼각망으로 나누고 각 점의 지반고를 이용해 토공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넓은 면적, 직사각형·삼각형 분할, 경지정리·택지조성이다.
단면법은 도로·수로처럼 길게 이어지는 선형 구간에서 일정 간격의 횡단면을 구해 토공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선형 공사, 횡단면이다.
등고선법은 등고선 사이의 면적과 높이차를 이용해 체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등고선, 지형 변화이다.
유토곡선은 절토와 성토의 토량 배분과 운반 거리를 검토하는 도표이지, 전 구역을 직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나누어 체적을 직접 산정하는 방법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단면법은 선형 공사 구간의 각 횡단면을 기준으로 체적을 구한다. 이 문항의 설명처럼 넓은 지역 전체를 직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단면법'이다. 올바르게는 '넓은 지역의 정지작업에서 전 구역을 직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은 점고법이다.'

② O
점고법은 경지정리, 택지조성처럼 넓은 면적의 정지 공사에서 많이 쓰이며, 부지를 직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구분한 뒤 각 점의 높이를 이용해 토량 체적을 산정한다. 제시된 두 설명이 모두 점고법의 전형적 특징과 일치한다.

③ X
등고선법은 지형의 등고선을 이용해 각 등고선 사이의 면적과 높이차로 체적을 계산한다. 이 문항처럼 전 구역을 직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것이 핵심인 방법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등고선법'이다. 올바르게는 '등고선법은 등고선을 기준으로 체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④ X
유토곡선은 절토량과 성토량의 균형, 토사 운반 계획을 검토하는 곡선도이다. 토량 체적을 직접 구하는 산정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유토곡선'이다. 올바르게는 '유토곡선은 산정된 토량을 바탕으로 토공 배분을 검토하는 도표이다.'

오답 포인트

넓은 지역의 토공이라는 말만 보고 등고선법이나 단면법을 함께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어는 '전 구역을 직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나눈다'는 부분이다. 이 표현이 나오면 점고법을 먼저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토량 산정법 문제는 먼저 구획 기준을 본다. 횡단면이면 단면법, 등고선이면 등고선법, 격자점이나 삼각망으로 전 구역을 나누면 점고법, 산정된 토량의 운반 배분을 그린 곡선이면 유토곡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점고법은 넓은 부지를 점과 망으로 나누어 구하고, 단면법은 선형 구간의 단면으로 구하며, 유토곡선은 토량 배분을 본다.

NoteBase

문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야생동물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물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 원칙적으로 현지 자생종을 식수한다.

② 생태통로 입구는 지형 · 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부에 식생을 조성한다.

③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통로의 폭을 좁게 설치한다.

④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설치지점 선정, 입구·출구 조성, 통로 길이와 폭의 관계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태통로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여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만든 통로이다.

핵심 구분

설치지점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현지조사로 선정한다. 입구와 출구는 현지 자생종을 식수하고 경관과 조화되게 조성한다. 통로의 길이와 폭은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 방향으로 판단하여,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시행규칙 별표 2는 동물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 원칙적으로 현지 자생종을 식수하도록 한다.
- 생태통로의 접근부를 주변 서식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 이용을 유도한다는 취지와 맞는다.

② O
-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는 지형·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고, 동물의 출입과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부에 적정한 밀도의 식생을 조성한다.
- 경관 조화와 이동성 확보를 함께 요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X
- 시행규칙 별표 2는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고 본다. 길이가 길어질수록 동물이 폐쇄감과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폭을 좁히는 방향이 아니다.
- 틀린 표현: "길이가 길수록 통로의 폭을 좁게 설치한다"
- 올바른 표현: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통로의 폭을 넓게 설치한다"

④ O
-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 단순히 보호지역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동 경로와 이동 특성을 반영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길이와 폭의 관계를 반대로 바꿔 놓은 선지이다. 설치지점, 식재, 경관 조화 기준은 익숙해도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힌다는 기준을 반대로 기억하면 쉽게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태통로 기준 문제는 설치지점, 입구·출구 조성, 길이와 폭의 관계처럼 수치·방향이 있는 문구를 먼저 확인하면 정답이 빨리 갈린다. 특히 "길수록 넓게"처럼 비교 방향이 들어간 문장은 반대로 바뀌었는지부터 본다.

암기 포인트

생태통로는 "이동 많은 곳에 설치, 입구는 자생종, 길면 폭은 넓게"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② 정원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정원 관리 전담인력이 8명 이상일 것

③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을 것

④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된 정원을 4개 이상 포함할 것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조직·인력, 운영실적, 주제정원 수 같은 법정 기준의 숫자와 문구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가정원은 지방정원 중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하는 정원이다.

핵심 구분

당시 시행령 별표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정원 관리 전담조직, 안내·교육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인력 8명 이상, 지방정원 등록 후 3년 이상의 운영실적 등이 포함된다. 주제정원 수는 서로 다른 주제별 정원 4개 이상이 아니라 5종 이상이라는 점이 핵심 구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은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포함된다.

② O
정원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정원 관리 전담인력이 8명 이상일 것이 요건이다.

③ O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운영기간 요건을 정확히 적은 선지이다.

④ X
틀린 이유는 주제정원 수를 줄여 적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행령상 요건은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한 정원이 5종 이상일 것이다.
틀린 표현: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된 정원을 4개 이상 포함할 것"
올바른 표현: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한 정원이 5종 이상일 것"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숫자 바꾸기이다. ①, ②, ③은 조문 취지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고, ④에서만 주제정원 수를 5종 이상에서 4개 이상으로 바꾸어 오답을 만든 형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정요건형 법령 문제는 조직 유무, 전담인력 수, 운영기간, 평가기준, 시설 수처럼 숫자와 기간이 붙는 요소를 먼저 대조하면 된다. 문장이 자연스러워 보여도 숫자 하나가 바뀌면 바로 오답이 된다.

암기 포인트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숫자 함정은 전담인력 8명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주제정원 5종 이상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7.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상 토지피복유형별 가중치가 가장 낮은 것은?

① 농업지역(과수원)

② 농업지역(시설재배지)

③ 시가화 건조지역(문화지역)

④ 시가화 건조지역(주거지역)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의 토지피복유형별 가중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토지의 자연성·식생 유지 정도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태면적률 = 대지 안에서 자연순환 기능을 가지는 면적의 비율이다.
가중치 = 토지피복유형별 생태적 기능의 크기를 수치화한 값이다.

핵심 구분

현재상태 생태면적률은 자연성이 높고 토양·식생이 많이 유지될수록 가중치가 높다. 이 지침에서는 농업지역(논·밭·과수원)이 0.8, 농업지역(시설재배지·기타재배지)가 0.6, 시가화 건조지역(문화·체육·휴양지역)이 0.3, 시가화 건조지역(주거지역)이 0.1이다. 따라서 네 선택지 중 가장 낮은 값은 주거지역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농업지역(과수원)의 가중치는 0.8이다. 과수원은 식생과 토양 기능이 비교적 유지되는 경작지로 평가되어 낮은 가중치가 아니다.
틀린 표현: 가장 낮은 가중치
올바른 표현: 과수원은 네 선택지 중 가장 높은 가중치이다.

② X
농업지역(시설재배지)의 가중치는 0.6이다. 비닐하우스 등으로 자연성이 과수원보다 낮아지지만, 주거지역보다는 여전히 높다.
틀린 표현: 가장 낮은 가중치
올바른 표현: 시설재배지는 주거지역보다 높은 가중치이다.

③ X
시가화 건조지역(문화지역)의 가중치는 0.3이다. 시가화된 건조지역이어서 농업지역보다 낮지만, 주거지역 0.1보다는 높다.
틀린 표현: 가장 낮은 가중치
올바른 표현: 문화지역은 주거지역보다 높은 가중치이다.

④ O
시가화 건조지역(주거지역)의 가중치는 0.1이다. 네 선택지 가운데 가장 작은 수치이므로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농업지역과 시가화 건조지역을 한 번에 섞어 놓아 직관으로만 고르면 헷갈리기 쉽다. 특히 ③ 문화지역과 ④ 주거지역은 둘 다 시가화 건조지역이지만, 문화·체육·휴양지역은 0.3이고 주거지역은 0.1이어서 주거지역이 더 낮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토지피복유형 가중치 문제는 유형 이름보다 자연성, 토양 노출, 식생 유지 정도를 먼저 본다. 자연성이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고 인공화가 강할수록 낮아지므로 과수원 0.8 > 시설재배지 0.6 > 문화지역 0.3 > 주거지역 0.1 순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과수원 0.8, 시설재배지 0.6, 문화지역 0.3, 주거지역 0.1이다. 시가화 주거지역이 가장 낮다.

NoteBase

문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소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가) 이내로 하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어린이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치거리는 (나) 이하, 규모는 (다) 이상으로 한다.
◯ 근린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이 3만 m^2 이상 10만 m^2 미만인 경우 (라)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① (가): 5%, (나): 150m, (다): 1,000m^2, (라): 10/100
② (가): 10%, (나): 250m, (다): 1,500m^2, (라): 15/100
③ (가): 5%, (나): 250m, (다): 1,500m^2, (라): 15/100
④ (가): 10%, (나): 500m, (다): 3,000m^2, (라): 20/100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관련 기준 중 소공원의 건폐율, 어린이공원의 유치거리·규모, 근린공원의 면적구간별 건폐율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건폐율 = 공원시설로 설치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공원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유치거리 = 주민이 해당 공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거리 기준이다.

핵심 구분

소공원은 건폐율 5% 이내, 공원시설 부지면적 20% 이하이다.
어린이공원은 장소 제한은 없고 유치거리는 250m 이하, 규모는 1, 500m^2 이상이다.
근린공원은 공원면적이 3만m^2 이상 10만m^2 미만이면 건폐율이 15/100 이하이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40% 이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소공원의 건폐율 5%는 맞지만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기준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유치거리 150m, 규모 1, 000m^2, 근린공원 건폐율 10/100이다. 올바르게는 유치거리 250m 이하, 규모 1, 500m^2 이상, 건폐율 15/100 이하이다.
2번: X. 어린이공원의 유치거리 250m, 규모 1, 500m^2, 근린공원 건폐율 15/100은 맞지만 소공원 건폐율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소공원 건폐율 10%이다. 올바르게는 5% 이내이다.
3번: O. 소공원 건폐율 5%, 어린이공원 유치거리 250m 이하와 규모 1, 500m^2 이상, 근린공원 건폐율 15/100 이하가 모두 맞다.
4번: X. 네 칸 모두 틀렸다. 틀린 표현은 소공원 건폐율 10%, 어린이공원 유치거리 500m, 규모 3, 000m^2, 근린공원 건폐율 20/100이다. 올바르게는 각각 5%, 250m 이하, 1, 500m^2 이상, 15/100 이하이다.

오답 포인트

소공원 5%-20%, 어린이공원 250m-1, 500m^2, 근린공원 3만m^2 이상 10만m^2 미만은 15/100이라는 기준을 서로 바꿔 넣기 쉽다. 특히 소공원의 5%와 근린공원의 15/100을 뒤섞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원 유형을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눈다. 그다음 소공원은 건폐율과 공원시설 부지면적,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와 규모, 근린공원은 면적구간별 건폐율을 대응시키면 조합형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소공원은 5-20, 어린이공원은 250m-1, 500m^2, 근린공원은 3만~10만 구간이 15/100이다.

NoteBase

문 9. 경사면의 내부에 불투수층이 형성되어 있어 지하로 유입된 우수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거나 사면에서 용출되는 물을 제거하기 위한 심도층 배수관 배치유형은?

① 차단형
② 어골형
③ 평행형
④ 선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면 내부의 불투수층 때문에 생기는 침투수·용출수를 어떤 심도층 배수관 배치로 처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차단형은 사면 안의 불투수층이나 용출선을 가로질러 배수관을 두어 침투수와 용출수를 중간에서 차단해 빼내는 형식이다. 키워드는 사면, 불투수층, 용출수 차단이다.
어골형은 주관을 중심으로 양측에서 지관이 비스듬히 붙는 형식이다. 키워드는 중앙 주관, 양측 지관이다.
평행형은 배수선을 비교적 규칙적으로 평행 배치하여 일정 구역의 물을 고르게 모으는 형식이다. 키워드는 균일 배수, 평행 배열이다.
선형은 여러 배수선이 한 점이나 한 줄 방향으로 모이도록 배치하는 형식이다. 키워드는 집중 배수, 선형 집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면 내부에 불투수층이 형성되어 침투수가 원활히 빠지지 않거나 사면에서 물이 용출될 때는 그 흐름을 가로막아 배출하는 차단형이 맞다.

② X
어골형은 중앙의 주관에 지관을 비스듬히 연결해 넓은 면의 물을 모으는 배치이다. 틀린 부분은 사면의 불투수층 용출수 제거에 적합하다고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어골형은 중앙 주배수선으로 물을 모으는 형식이다.

③ X
평행형은 일정 면적을 비교적 균일하게 배수하려고 배수선을 평행하게 두는 형식이다. 틀린 부분은 사면 내부의 용출수를 차단하는 형식이라고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평행형은 면적 배수의 균일성이 필요한 곳에 쓰는 형식이다.

④ X
선형은 여러 배수선이 한 방향 또는 한 지점으로 모이게 하는 형식이다. 틀린 부분은 불투수층에서 나오는 물을 차단하는 용도라고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선형은 지형 흐름을 따라 집수 방향을 정하는 배치이다.

오답 포인트

어골형·평행형·선형은 모두 배수선의 배열 모양을 나타내므로 형태만 보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발문에는 사면 내부의 불투수층, 침투수, 용출수 제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핵심은 배열 모양보다 차단 목적의 유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 사면, 불투수층, 용출수, 침투수 차단이 나오면 먼저 차단형을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중앙 주관으로 모으는지, 평행하게 고르게 배수하는지, 한 점으로 집중시키는지를 묻는 경우에는 어골형·평행형·선형을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사면의 불투수층 용출수는 차단형, 중앙 주관 집수는 어골형, 고른 면적 배수는 평행형이다.

NoteBase

문 10. 「조경기준」상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물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옥상조경 면적 산정 시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③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조경의 지피식물 식재 토심은 인공토양 사용 시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하고 10cm 이상으로 조성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상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조경의 지원 주체, 옥상조경 면적 산정, 안전구조물, 식재토심 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인공지반조경은 건축물의 옥상,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 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형성하여 설치하는 조경이다. 옥상조경은 그중 지표면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이다.

핵심 구분

옥상조경 지원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옥상 교목은 면적 산정 시 식재 수량의 1.5배로 본다. 옥상조경지역의 안전구조물은 높이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초화류 및 지피식물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 두께를 제외하고 15센티미터 이상이 원칙이며, 인공토양 사용 시에는 10센티미터 이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조경기준」 제19조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한 건물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의 작성·보급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한다.
- 틀린 표현: "환경부장관"
- 올바른 표현: "국토교통부장관"

② O
- 「조경기준」 제12조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 옥상이라는 특수한 조성 여건을 반영한 가중 산정 규정과 일치한다.

③ O
- 「조경기준」 제18조 제1호는 옥상조경지역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 안전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 안전관리 기준의 핵심 수치를 정확히 제시한 선지이다.

④ O
- 「조경기준」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초화류 및 지피식물의 식재 토심을 배수층 두께를 제외하고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인공토양 사용 시에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 선지의 내용은 지피식물에 대한 인공토양 사용 시 완화 기준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내용 대부분이 맞아서 소관 부처만 바꿔 놓은 함정이다. 옥상조경 지원 규정은 환경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 체계라는 점을 놓치면 쉽게 틀릴 수 있다. ④도 일반 토심 기준 15센티미터와 인공토양 사용 시 10센티미터를 뒤섞으면 오답이 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정규칙형 선지는 주체, 수치, 예외 문구를 먼저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이 문항에서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수치는 1.5배·1.2미터·10센티미터인지 순서대로 대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옥상조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옥상 교목은 1.5배, 난간은 1.2미터 이상, 지피식물 토심은 인공토양이면 10센티미터 이상이다.

NoteBase

문 11. 수목관리에 있어 곰팡이에 의한 병이 아닌 것은?

① 시들음병
② 불마름병
③ 그을음병
④ 흰가루병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목 병해 중 곰팡이병과 세균병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들음병은 병원성 곰팡이가 도관부를 침입해 수분 이동을 막으면서 시듦을 일으키는 병이다.
불마름병은 주로 세균에 의해 꽃, 잎, 가지가 불에 탄 듯 마르는 세균성 병해이다.
그을음병은 해충의 감로 위에 곰팡이가 자라 잎과 가지 표면에 검은 그을음막을 만드는 병이다.
흰가루병은 잎과 어린 줄기 표면에 흰 가루처럼 보이는 곰팡이 균사가 생기는 병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시들음병은 대표적인 곰팡이병으로 본다. 도관부를 막아 시들게 하는 진균성 병해이므로 발문에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곰팡이에 의한 병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곰팡이에 의한 병이다'이다.
② O - 불마름병은 곰팡이병이 아니라 세균병이다. 장미과 수목에서 많이 문제 되며 잎과 가지가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증상이 특징이므로 정답이다.
③ X - 그을음병은 곰팡이가 잎 표면에 그을음처럼 번지는 병이다. 틀린 표현은 '곰팡이에 의한 병이 아닌 것'에 포함시킨 점이며, 올바르게는 '곰팡이에 의한 병이다'이다.
④ X - 흰가루병은 식물 표면에 흰 분말상 균총을 만드는 대표적인 곰팡이병이다. 틀린 표현은 '곰팡이에 의한 병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곰팡이에 의한 병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불마름병은 이름에 '마름'이 들어가 시들음병과 같은 계열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들음병은 진균에 의한 도관부 병해이고, 불마름병은 세균성으로 불에 탄 듯한 마름 증상이 핵심이라는 점이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병명 앞의 증상어보다 병원체를 먼저 구분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잎 표면의 가루, 그을음막, 도관부 시듦처럼 곰팡이성 징후가 보이면 진균병으로 보고, 불마름병처럼 대표적으로 세균성으로 분류되는 병은 예외로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불마름병은 세균병이고, 시들음병·그을음병·흰가루병은 곰팡이병이다.

NoteBase

문 12. 「경관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경관계획 수립기준의 고시 주체와 수립 원칙,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은 경관계획을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세울지 정하는 공통 기준이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두는 협의기구이다.

핵심 구분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수립기준의 내용은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주민·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추천자,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틀린 표현: "시·도지사는"
올바른 표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② O
경관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상 수립기준의 내용에 그대로 들어가는 사항이므로 옳다.

③ O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구성 범위와 인원 한도를 정확히 옮긴 선지이므로 옳다.

④ O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행령이 정한 수립기준의 내용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은 수립기준의 내용이 아니라 고시 주체를 바꿔 놓은 선지이다. 수립기준의 세부 내용인 ②·④와, 그 기준을 누가 정하여 고시하는지에 관한 주체 규정을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선지에서는 먼저 주체를 본다. "누가 정하는가"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가"를 분리해서 읽으면 ①처럼 주체만 바꿔 놓은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경관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내용은 독창성·다양성 확보와 실질적 추진 가능성이다.

NoteBase

문 13. 녹음식재로 적합한 수종이 아닌 것은?

① Forsythia koreana

② Celtis sinensis

③ Quercus myrsinaefolia

④ Zelkova serrata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녹음식재에 필요한 수형과 수관의 발달 정도를 기준으로 교목과 관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녹음식재는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식재이므로 줄기가 일정 높이 이상 자라고 수관이 넓게 퍼지는 교목이 적합하다.
Forsythia koreana는 봄꽃 감상용으로 많이 쓰이는 낙엽 관목이어서 그늘 형성용 녹음수로 보기 어렵다.
Celtis sinensis, Quercus myrsinaefolia, Zelkova serrata는 모두 수관을 형성하는 목본성 교목으로 녹음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Forsythia koreana는 개나리로, 대표적인 낙엽 관목이다. 녹음식재는 상부 그늘 형성이 핵심인데 개나리는 수고와 수관 규모가 작아 이에 부적합하다. 틀린 표현은 수종 선택 자체이며, 올바르게는 화목류나 경계식재용 관목에 가깝다.

② O
Celtis sinensis는 팽나무로 크게 자라는 교목이며 가지와 수관이 발달해 녹음을 제공하기에 적합하다.

③ O
Quercus myrsinaefolia는 가시나무로 상록 활엽 교목에 해당한다. 수관을 형성하는 목본이므로 녹음식재 수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O
Zelkova serrata는 느티나무로 수형이 크고 수관이 넓게 퍼져 대표적인 녹음수로 활용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개나리처럼 익숙한 조경수라는 이유만으로 녹음식재에도 적합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수종의 유명세가 아니라 관목인지 교목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수관 규모가 있는지를 묻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녹음식재를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교목인지 관목인지부터 가른다. 그다음 수고가 크고 가지가 퍼져 상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수관형 수종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녹음식재는 그늘을 만드는 교목, 개나리는 꽃을 보는 관목이다.

NoteBase

문 14. 토양환경과 식재수종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척박지토양 - 참느릅나무, 노간주나무, 곰솔, 줄가시나무

② 습지토양 - 은백양, 가래나무, 자작나무, 들메나무

③ 사양토 - 히말라야시다, 삼나무, 솔송나무, 전(젓)나무

④ 강산성토양 - 향나무, 고광나무, 상수리나무, 남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양의 배수성, 수분조건, 산도에 따라 적응 수종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척박지토양은 비옥도가 낮고 건조, 바람, 염분 같은 불리한 조건을 견디는 수종이 맞는다.
습지토양은 지하수위가 높고 토양수분이 많은 곳이므로 내습성이 큰 수종이 맞는다.
사양토는 배수와 통기가 비교적 좋으면서도 일정한 보수력을 가져 많은 침엽수 생육에 무난하다.
강산성토양은 산성 적응 수종이 맞고, 중성이나 약알칼리 쪽에서 더 무난한 수종을 섞으면 연결이 어긋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척박지토양에는 참느릅나무, 노간주나무, 곰솔처럼 메마른 땅과 불량한 입지에 비교적 강한 수종이 들어간다. 줄가시나무도 척박한 토양 적응성이 있어 연결이 맞다.
② O: 습지토양에는 은백양, 가래나무, 지작나무, 들메나무처럼 하천변이나 습윤지에서 잘 자라는 수종이 들어간다. 수분 요구도가 높고 내습성이 비교적 커서 연결이 맞다.
③ O: 사양토는 배수와 통기가 좋아 히말라야시다, 삼나무, 솔송나무, 전나무 같은 침엽수 식재 기반으로 무난하다. 과습보다 배수 양호한 토양을 선호하는 수종군이라 연결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강산성토양에 향나무와 고광나무를 함께 묶은 점이다. 상수리나무와 남천은 산성 토양 적응성이 있으나, 향나무와 고광나무는 강산성 대표 수종으로 보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강산성토양에 산성 적응 수종을 연결하고 향나무, 고광나무는 이 묶음에서 빼는 쪽이 맞다.

오답 포인트

습지와 척박지는 수분조건으로 쉽게 구분되지만, ④는 산도 문제라서 다른 축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수리나무와 남천이 들어 있어 그럴듯해 보이지만 향나무까지 강산성 수종으로 묶은 부분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토양을 건조·척박, 습지, 배수 양호, 산성 토양으로 나눈다. 그다음 수종을 내건성, 내습성, 침엽수 일반 적응성, 산성 적응성으로 대조하면 오답 선지가 빠르게 걸러진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습지는 은백양·들메, 사양토는 침엽수, 강산성은 참나무류·남천 쪽이며 향나무는 강산성 대표 수종으로 외우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영국의 정원 및 조경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윌리엄 켄트(William Kent)는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② 랜실롯 브라운(Lancelot Brown)은 처음으로 ‘Landscape Garden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③ 험프리 렙톤(Humphry Repton)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활약한 풍경식 정원을 완성한 이론가이자 설계자이다.

④ 조셉 팩스턴(Joseph Paxton)은 리버풀에 위치한 버켄헤드 공원(Birkenhead Park)을 설계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국 정원사와 조경가의 대표 업적, 직함, 시대적 위치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인물·이론 매칭형 문항이다.

핵심 정리

윌리엄 켄트: 자연주의 정원의 초기 확립자이다.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라는 말로 기하학식 직선 구성에서 벗어난 풍경식 정원의 방향을 상징한다.
랜슬롯 브라운: 영국 풍경식 정원을 대규모로 완성한 대표 설계자이다. 자연스러운 초지, 완만한 지형, 호수형 수면을 통해 이상화된 전원풍경을 만들었다.
험프리 렙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활동하며 브라운 이후 풍경식 정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설계 실무를 이어 간 인물이다. 스스로를 landscape gardener라 부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셉 팩스턴: 공공공원과 온실 설계로 유명한 인물이다. 버컨헤드 공원 설계와 크리스털 팰리스로 대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윌리엄 켄트는 영국 풍경식 정원의 초기 전개에서 핵심 인물이며,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라는 표현으로 자연주의적 곡선미를 강조한 인물로 정리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랜슬롯 브라운은 처음으로 Landscape Garden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험프리 렙톤이 스스로를 landscape gardener라 칭한 최초의 인물로 보는 것이 맞다. 브라운은 풍경식 정원의 거장이지만 이 직함을 처음 사용한 인물은 아니다.

③ O
험프리 렙톤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활동한 인물이며, 브라운 이후 영국 풍경식 정원을 이론과 설계 양면에서 정리한 설계자이다. 따라서 시대와 역할의 연결이 맞다.

④ O
조셉 팩스턴은 버컨헤드 공원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이 공원은 영국 공공공원사에서 중요한 작품이므로 인물과 작품의 연결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②는 브라운과 렙톤이 모두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인물이라는 점을 이용한 혼동 선지이다. 브라운은 풍경식 정원의 대표 설계자이고, 렙톤은 그 뒤를 이어 이론화하고 스스로 landscape gardener라는 직함을 사용한 인물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인물 이름을 보면 대표 키워드를 바로 연결해 판단한다. 켄트는 자연주의 정원의 초기 전개, 브라운은 풍경식 정원의 대표 설계, 렙톤은 landscape gardener와 이론적 정리, 팩스턴은 공공공원과 온실 설계로 연결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켄트는 자연주의의 출발, 브라운은 풍경식 정원의 완성, 렙톤은 landscape gardener, 팩스턴은 버컨헤드 공원이다.

NoteBase

문 16.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에서 아스팔트 및 골재가 떨어져 나가는 파손 형태는?

① 소성변형

② 박리

③ 단차

④ 균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대표적 파손 형태를 증상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박리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부착이 약해져 표면에서 아스팔트 및 골재가 떨어져 나가는 파손이다.
소성변형은 반복하중으로 포장면이 눌리거나 밀려 형상이 변하는 현상이다.
단차는 이음부나 접속부에서 높이 차가 생긴 상태이다.
균열은 포장 표면이 선형으로 갈라지는 파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소성변형은 재료가 떨어져 나가는 파손이 아니라 하중으로 눌리거나 옆으로 밀리면서 포장 형상이 변하는 현상이다. 틀린 부분은 '소성변형'이라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재료가 탈락하는 파손은 박리이다.
② O: 박리는 아스팔트 및 골재가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뜻하므로 제시된 설명과 일치한다.
③ X: 단차는 포장면이나 이음부 사이의 높이 차를 말하므로 재료 탈락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틀린 부분은 '단차'라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높이 차가 아니라 표면 재료가 떨어져 나가면 박리이다.
④ X: 균열은 포장 표면이 갈라지는 파손이며, 핵심 증상은 선형 파단이다. 틀린 부분은 '균열'이라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갈라짐이 아니라 아스팔트와 골재의 탈락이면 박리이다.

오답 포인트

포장 파손 명칭을 결과 모습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모두 비슷한 손상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문항은 '떨어져 나감'이라는 재료 탈락 표현을 읽고 박리를 떠올리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재료가 떨어져 나간다, 탈락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먼저 박리를 본다. 눌림·밀림이면 소성변형, 높이 차이면 단차, 갈라짐이면 균열로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떨어져 나가면 박리, 눌려 변하면 소성변형, 높이 차면 단차, 갈라지면 균열이다.

NoteBase

문 17. 「표준시방서(KCS 34 99 10 : 2019)」상 가로수 전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은?

고압선이 있는 경우 수고는 고압선보다 (가)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① $1m$
② $1.5m$
③ $2m$
④ $2.5m$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표준시방서상 고압선 인접 가로수 전정 시 허용되는 기본 수고 한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원칙적 수고 한도와 예외적으로 더 높은 수고를 유지할 때의 처리 방법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수고는 지표면부터 나무의 맨 윗부분까지의 높이이다.

핵심 구분

표준시방서는 고압선이 있는 경우 수고를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다. 다만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표준시방서의 원칙 문구가 바로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수고 한도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② X: 표준시방서는 1.5m가 아니라 1m 밑까지를 기준으로 둔다.
틀린 표현: 1.5m
올바른 표현: 1m
③ X: 2m는 시방서의 기본 한도가 아니다. 고압선과의 이격을 넉넉하게 잡는 식으로 바꾼 수치일 뿐 기준 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2m
올바른 표현: 1m
④ X: 2.5m는 보행 공간이나 지하고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수치이지만, 이 문장에서 묻는 것은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 한도이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2.5m
올바른 표현: 1m

오답 포인트

고압선 관련 기준을 다른 공간 확보 기준과 섞으면 오답이 된다. 특히 ④의 2.5m는 가로수 하부 통행높이 같은 다른 기준과 혼동하기 쉬워 출제자가 노린 함정에 가깝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고압선, 수고, 전정이 함께 나오면 먼저 원칙 문구를 찾으면 된다. 원칙은 고압선보다 1m 밑까지이고, 그보다 높게 유지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수관 내 통로를 둔다.

암기 포인트

고압선 가로수 전정의 기본값은 선 아래 1m이고, 더 키우려면 수관 통로 확보가 예외이다.

NoteBase

문 18. 수목동해(樹木凍害)를 받은 부위에 따른 분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분수관고사형(部分樹冠枯死形) 동해는 부분적으로 고사한 형태로, 북쪽보다 남쪽에서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난다.

② 초고형(梢枯形) 동해는 이른봄이나 늦가을에 나온 제일 어리고 연한 싹이 동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③ 아고형(芽枯形) 동해는 수간 밑동 1m 이하의 수피 부분이 동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④ 지고형(枝枯形) 동해는 상록수에서 가지가 부분적으로 동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수목동해를 받은 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부분수관고사형, 초고형, 아고형, 동고형, 지고형의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분수관고사형은 수관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사하는 형태이며 남쪽에서 피해가 더 두드러진다.
초고형은 수관을 이루는 연한 끝순이 온도의 급강하나 찬바람으로 피해를 입는 형태이다.
아고형은 이른봄이나 늦가을의 어리고 연한 새싹이 늦서리나 이른 눈으로 얼어 죽는 형태이다.
동고형은 수간 밑둥치의 수피, 특히 지표면 가까운 부위가 일교차로 피해를 입는 형태이다.
지고형은 낙엽수에서 가지가 부분적으로 동해를 입는 형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부분수관고사형은 전면수관고사형보다 피해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며, 일반적으로 북쪽보다 남쪽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난다.

② X
틀린 표현은 "이른봄이나 늦가을에 나온 제일 어리고 연한 싹"이다.
이 설명은 아고형에 해당한다. 초고형은 수관을 구성하는 연한 끝순이 온도의 급강하나 찬바람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수간 밑둥 1m 이하의 수피 부분"이다.
이 설명은 아고형이 아니라 동고형에 해당한다. 아고형은 봄이나 늦가을에 나온 어리고 연한 새싹이 동해를 입는 것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상록수에서"이다.
지고형은 낙엽수에서 가지가 부분적으로 동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상록수에서 수관의 작은 가지와 잎이 전체적으로 마르는 유형은 수관고사형에 가깝다.

오답 포인트

초고형과 아고형은 모두 어린 조직의 피해를 말해 헷갈리기 쉽지만, 초고형은 끝순의 피해이고 아고형은 새로 나온 어린 새싹의 피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수간 밑둥의 수피 피해는 동고형이고, 상록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고형보다 수관고사형과 연결해 보는 것이 맞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해 분류 문제는 먼저 피해 부위를 본다. 수간 밑둥이면 동고형, 연한 끝순이면 초고형, 막 나온 어린 새싹이면 아고형, 낙엽수의 가지 일부면 지고형, 수관이 부분적으로 고사하고 남쪽 피해가 크면 부분수관고사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끝순은 초고형, 어린 새싹은 아고형, 줄기 밑둥은 동고형, 낙엽수 가지 일부는 지고형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19. 「표준시방서(KCS 34 99 10 : 2019)」상 제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한다.

②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③ 잔디식재 후 45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 하고,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④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표준시방서(KCS 34 99 10:2019)」상 잔디밭 제초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제초 방법별 기준과 방제 실시 시기를 정확한 수치로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발아전 처리제는 잡초가 올라오기 전에 토양에 처리하는 제초제이다.
경엽처리제는 이미 올라온 잡초의 잎과 줄기에 작용하는 제초제이다.

핵심 구분

대규모 잔디밭은 제초제 사용과 잔디깎기·시비 등의 관리가 기준이다.
소규모 잔디밭은 직접 뽑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연 5~8회 정도 잡초 발생 때마다 제거하는 것이 기준이다.
잔디 식재 후 병해 방제는 45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 1회 실시가 기준이다.
인력 제초는 잡초의 뿌리 제거와 식재지 밖 반출·처리가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대규모 잔디밭은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 잔디깎기, 시비 등을 병행하는 방식이 기준에 맞는다. 넓은 면적은 인력 제초보다 약제와 일반 관리의 병행이 효율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② O
소규모 잔디밭은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고,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하는 것이 기준에 맞는다. 소면적은 발생 즉시 수시 제거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③ X
기준은 잔디식재 후 45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기간 수치가 틀렸다.
틀린 표현: 잔디식재 후 45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올바른 표현: 잔디식재 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④ O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고,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해야 한다. 단순 예초가 아니라 뿌리 제거와 외부 반출까지 요구된다는 점이 기준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③의 방제 시기를 30일에서 45일로 바꿔 놓은 수치 함정이다. 약제 종류와 균일 살포라는 뒤 문장이 익숙하면 앞의 기간 수치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준시방서형 문항은 먼저 발문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확인한 뒤, 각 선지의 수치·기간·횟수·주체를 기준문구와 대조해 판단한다. 내용이 대체로 맞아도 기간이나 횟수 한 단어가 바뀌면 오답이 된다.

암기 포인트

잔디 제초는 소규모 직접 제거, 대규모 약제 활용, 식재 후 방제는 30일 이내 1회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20. '방지방도' 형태의 연못은?

① 논산 윤증 고택 연못

② 서울 경복궁 향원지

③ 강릉 활래정 연못

④ 서울 창덕궁 부용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통 연못의 형식 구분에서 방지방도와 방지원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방지방도는 네모난 연못에 네모난 섬을 둔 형식이다.
방지원도는 네모난 연못에 둥근 섬을 둔 형식으로, 천원지방 사상을 반영한 전형적인 연못 형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논산 윤증 고택 연못은 네모난 연못 가운데 원형 섬을 둔 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방지방도가 아니다.
틀린 부분은 '방지방도'이다.
올바르게는 '논산 윤증 고택 연못은 방지원도형 연못이다.'이다.

② X: 서울 경복궁 향원지는 방형 연못 가운데 섬을 둔 형식으로 분류되며, 조경사에서는 방지원도 계열의 대표 사례로 본다.
틀린 부분은 '방지방도'이다.
올바르게는 '서울 경복궁 향원지는 방지원도형 연못이다.'이다.

③ O: 강릉 활래정 연못은 네모난 연못 안에 네모난 섬을 둔 형식으로, 방지방도의 대표 사례에 해당한다.

④ X: 서울 창덕궁 부용지는 네모난 연못과 둥근 섬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대표적인 방지원도 사례이다.
틀린 부분은 '방지방도'이다.
올바르게는 '서울 창덕궁 부용지는 방지원도형 연못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는 연못 바깥 윤곽만 보고 모두 방지로 묶어 버리는 착각을 노렸다. 이 유형은 연못이 네모인지보다 섬이 네모인지 둥근지가 정답을 가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연못 형식 문제는 먼저 연못이 방지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가운데 섬의 형태를 본다. 섬이 네모나면 방지방도, 섬이 둥글면 방지원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활래정은 방도, 부용지·향원지·윤증 고택은 원도이다.

NoteBase

문 21. 조경재료 중 금속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리, 알루미늄, 니켈, 주석, 아연은 대표적인 철금속이다.

② 주철은 크롬 및 니켈 등을 함유하고 탄소량이 적은 비철금속이다.

③ 특수강은 탄소량이 1.7~6.6%이며, 용융온도가 낮아 주조가 용이하다.

④ 스테인리스강은 내식성 및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조경 시설물이나 조형물로 많이 사용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금속재료의 분류와 대표적 성질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철금속은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료로서 강과 주철이 대표적이다.
비철금속은 철 이외의 금속으로서 구리, 알루미늄, 니켈, 주석, 아연 등이 대표적이다.
주철은 철-탄소 합금 중 탄소량이 많은 재료로 주조성이 좋고, 강은 주철보다 탄소량이 적으며 특수강은 여기에 합금원소를 더해 성능을 높인 강이다.
스테인리스강은 크롬 등을 넣어 내식성을 높인 특수강의 한 종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구리, 알루미늄, 니켈, 주석, 아연은 철금속이 아니라 비철금속이다. 틀린 표현은 "대표적인 철금속"이며, 올바르게는 "대표적인 비철금속"이다.
② X: 주철은 비철금속이 아니라 철금속이고, 탄소량도 적지 않다. 틀린 표현은 "탄소량이 적은 비철금속"이며, 올바르게는 "탄소량이 비교적 많은 철-탄소계 철금속"이다.
③ X: 탄소량 1.7~6.6%와 낮은 용융온도로 주조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특수강이 아니라 주철의 성질에 가깝다. 틀린 표현은 "특수강은"이며, 올바르게는 "주철은"이다.
④ O: 스테인리스강은 내식성이 크고 기계적 성질도 양호하여 조경 시설물, 난간, 조형물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

오답 포인트

①은 비철금속의 예시를 철금속으로 바꿔 놓은 선지이고, ②와 ③은 주철의 성질을 비철금속 또는 특수강의 성질처럼 뒤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금속 이름 암기만으로 풀면 ②, ③의 탄소량과 주조성 표현에 흔들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철금속과 비철금속을 나누고, 그다음 강과 주철을 탄소량과 용도로 구분하면 된다. 비철금속의 예시가 나오면 철이 아닌 금속인지 확인하고, 탄소량이 많고 주조가 쉬우면 주철, 내식성을 강조하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비철금속은 구리·알루미늄, 주조성은 주철, 내식성은 스테인리스강이다.

NoteBase

문 22. 같은 과(科)에 속하는 수목이 아닌 것은?

① 오리나무
② 사스레피나무
③ 개서어나무
④ 난티잎개암나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목의 과 분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오리나무, 개서어나무, 난티잎개암나무는 모두 자작나무과 수목이다.
사스레피나무는 자작나무과가 아니라 전통 분류에서는 차나무과, APG IV 분류에서는 펜타필락스과로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O: 오리나무는 Alnus 속 수목으로 자작나무과에 속한다.
2번 X: 사스레피나무는 자작나무과가 아니다. 전통 분류에서는 차나무과, APG IV 분류에서는 펜타필락스과로 본다. 틀린 표현은 '같은 과에 속한다'이고, 올바르게는 '다른 과에 속한다'이다.
3번 O: 개서어나무는 Carpinus 속 수목으로 자작나무과에 속한다.
4번 O: 난티잎개암나무는 개암나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Corylus 속 자작나무과 수목이다.

오답 포인트

사스레피나무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 자작나무과 수목들과 함께 외우기 쉽다. 반대로 난티잎개암나무도 이름이 낯설어 다른 과로 오해하기 쉽지만, 개암나무류는 자작나무과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 분류 문제는 낱말 느낌보다 대표 속을 먼저 떠올리면 빠르다. 오리나무는 Alnus, 개서어나무는 Carpinus, 개암나무류는 Corylus로 자작나무과이고, 사스레피나무는 그 묶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오리나무·서어나무·개암나무는 자작나무과, 사스레피나무는 자작나무과가 아니다.

NoteBase

문 23. 조경수목의 규격표시 방법이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은행나무(Ginkgo biloba): 수고 H(m) × 근원직경 R(cm)
ㄴ.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glyptostroboides): 수고 H(m) × 흉고직경 B(cm)
ㄷ. 감나무(Diospyros kaki): 수고 H(m) × 근원직경 R(cm)
ㄹ. 잣나무(Pinus koraiensis): 수고 H(m) × 흉고직경 B(cm)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수목의 생육 형태에 따라 교목류 규격을 흉고직경 B, 근원직경 R, 수관폭 W 중 무엇으로 표시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곧은 줄기가 있어 흉고부를 잴 수 있는 교목은 \"수고 H×흉고직경 B\"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흉고부 측정이 곤란한 수목은 \"수고 H×근원직경 R\"로 표시한다.
주로 상록성 침엽수로서 가지가 줄기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수관폭 W\"로 표시한다.
메타세쿼이아와 은행나무는 곧은 줄기가 뚜렷해 B 표기가 맞고, 감나무는 분지가 낮아 R 표기가 맞으며, 잣나무는 상록성 침엽수라서 B보다 W 표기가 원칙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2 · 2차

선지별 해설

① X
- ①은 ㄱ, ㄴ을 묶었는데 ㄴ만 옳고 ㄱ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 ㄱ의 틀린 표현은 \"은행나무: 수고 H×근원직경 R\"이다.
- 은행나무는 곧은 줄기가 있어 흉고부 측정이 가능하므로 올바르게는 \"수고 H×흉고직경 B\"로 본다.
- ㄴ의 메타세쿼이아는 곧은 줄기가 뚜렷한 교목이므로 \"수고 H×흉고직경 B\"가 맞다.

② X
- ②는 ㄱ, ㄹ을 묶었는데 두 진술 모두 틀리므로 오답이다.
- ㄱ은 은행나무를 R로 표시한 점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수고 H×흉고직경 B\"이다.
- ㄹ의 틀린 표현은 \"잣나무: 수고 H×흉고직경 B\"이다.
- 잣나무는 주로 상록성 침엽수로서 가지가 줄기 아랫부분부터 자라므로 올바르게는 \"수고 H×수관폭 W\"로 표시한다.

③ O
- ③은 ㄴ, ㄷ을 묶은 것이고 두 진술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 메타세쿼이아는 줄기가 곧게 올라가 흉고부 직경 측정이 가능하므로 \"수고 H×흉고직경 B\"가 맞다.
- 감나무는 줄기가 낮은 위치에서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 흉고부 측정형보다 근원직경형으로 보므로 \"수고 H×근원직경 R\"가 맞다.

④ X
- ④는 ㄷ, ㄹ을 묶었는데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 ㄷ의 감나무 표기는 맞다.
- ㄹ은 잣나무를 흉고직경 B로 본 점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수고 H×수관폭 W\"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는 R과 B의 구분만 외우게 만들지 않고, 상록성 침엽수는 아예 W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섞어 함정을 만들었다. 특히 은행나무와 감나무는 둘 다 낙엽수라서 같은 직경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고, 잣나무를 단순히 교목이므로 B라고 오판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곧은 주간이 있어 흉고부 측정이 되는지 본다. 되면 B,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면 R, 상록성 침엽수처럼 아랫가지가 살아 있어 수관 형태가 핵심이면 W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곧은 교목은 B, 낮게 갈라지면 R, 아랫가지 많은 상록침엽수는 W이다.

NoteBase

문 24. 내염성(耐鹽性)이 강한 수종으로만 묶은 것은?

① 단풍나무 - 벚나무

② 가문비나무 - 전(젓)나무

③ 소나무 - 목련

④ 후박나무 - 팽나무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안 식재에서 내염성이 강한 대표 수종과 염해에 약한 수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염성은 토양 염분이나 염풍에 견디는 성질이다.
후박나무와 팽나무는 해안 방풍림과 해안 식재에 자주 쓰이는 대표 내염수종이다.
단풍나무, 벚나무, 목련은 염해에 비교적 약한 편이고, 가문비나무와 전나무는 냉량지성 침엽수로서 해안 염분 환경에 강한 대표 수종으로 보지 않는다.
소나무도 해송과 같게 보면 안 되며, 일반 소나무는 강한 내염수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X: 단풍나무와 벚나무는 모두 내염성이 강한 조합이 아니다. 특히 단풍나무와 벚나무류는 해안의 염풍과 염분 토양에서 피해를 받기 쉽다. 틀린 표현은 '내염성이 강한 수종으로만'이다. 올바르게는 '내염성이 강하지 않은 수종이 포함된 조합'이다.
② X: 가문비나무와 전나무는 냉량한 산지에 잘 맞는 침엽수로, 해안 염분 환경에 강한 대표 수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내염성이 강한 수종으로만'이다. 올바르게는 '내염성보다 냉량지 적응성이 두드러지는 수종 조합'이다.
③ X: 소나무만 보고 해안 적응성이 강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 소나무는 해송과 구별해야 한다. 여기에 목련은 염해에 약한 편이므로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소나무-목련'을 내염성이 강한 수종만의 조합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목련이 포함되어 내염성이 강한 수종만의 조합이 아니다'이다.
④ O: 후박나무와 팽나무는 모두 해안 방풍림과 해안 식재에 쓰이는 대표 내염수종이다. 염풍과 염분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커서 내염성이 강한 수종으로 묶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소나무를 보면 곧바로 해안수종으로 연결하는 오류가 잦다. 이 문항은 해송이 아니라 일반 소나무를 제시했고, 단풍나무·벚나무·목련처럼 염해에 약한 수종을 함께 섞어 놓아 혼동을 유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안 대표 수종인지, 실제로 방풍림이나 해안 식재에 쓰이는지로 먼저 거른다. 후박나무·팽나무처럼 해안 적응성이 분명한 수종은 남기고, 단풍나무·벚나무·목련처럼 염해에 약한 수종이 끼면 바로 제외된다.

암기 포인트

후박·팽은 해안 내염수종, 단풍·벚·목련은 염해에 약한 수종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5. 고대 이집트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집트 주택정원은 방형 또는 장방형의 화단·연못·울타리 등의 배치로 되어 있다.

②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왕비 아미티스를 위하여 공중정원 (hanging garden)을 조성하였다.

③ 주택정원 식물로는 연꽃, 파피루스, 종려 등이 종교적 상징성과 장식적인 목적으로 식재되었다.

④ 아메노피스 3세 신하의 무덤 속 벽화에 그려진 분묘정원은 정방형의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목을 열식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고대 이집트 정원의 평면 구성과 식재 특징을 메소포타미아의 공중정원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집트 정원은 높은 담이나 울타리 안에 연못, 화단, 수목을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폐쇄형 정원이다.
공중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연결되는 바빌로니아 계통의 정원 전승으로, 이집트 조경의 사례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집트 주택정원은 방형 또는 장방형의 질서정연한 평면이 특징이며, 화단·연못·울타리가 규칙적으로 배치되었다.

② X
틀린 부분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공중정원을 고대 이집트 조경의 사례처럼 제시한 점이다.
실제로는 공중정원은 바빌로니아의 대표적 정원 전승으로 이해되며, 이집트 조경 설명으로는 맞지 않는다.

③ O
연꽃, 파피루스, 종려 등은 이집트 정원에서 장식성과 함께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식물로 사용되었다.

④ O
이집트 분묘정원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기하학적 구획 속에 수목을 열식한 모습이 벽화에 나타나며, 선지의 설명은 그 특징에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공중정원은 매우 유명한 고대 서아시아 조경 소재이므로, 이를 이집트 조경과 같은 범주로 섞어 제시하면 쉽게 넘어가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고대 전체가 아니라 이집트라는 지역 구분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대 조경사는 먼저 문명의 권역을 구분해서 판단한다. 이집트는 기하학적 담장정원과 연못 중심, 메소포타미아는 공중정원 전승처럼 대표 이미지를 연결하면 선지 판단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이집트는 담장 안 직선 정원, 공중정원은 바빌로니아이다.

NoteBase